

“협력업체 되면 돈 번다고? 열 중 셋은 망한다”

## 대기업 ‘돈잔치’ 中 中企 ‘빚더미’

### 불공정 하도급·인력 빼기기에 양극화 심화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납품단가를 후려치니 죽을 맛입니다.”(광주지역 금형업체 A사)  
“60일 내 납품대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도 안됩니다. 이자는 언급생심이 고 설사 이자를 지급했다가도 다른 통장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기계부품업체 B사)  
“매출은 50%가량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0%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마진이 줄자 납품회사에 떠넘긴 겁니다.”(코스닥 상장사 C사)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대기업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대 실적에 일조한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 협력업체, 건설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과 골목가게를 비롯한 영세 유통업체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쪼어짜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으로 점점 궁핍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3·9면> 광주경영자총협회 임홍섭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협력업체가 되면 저절로 돈을 버는 줄 알지만 열에 셋은 망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코스닥업체 C사는 2분기 매출이 50%가량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되레 30%나 줄어들었다. 주 고객사인 대기업이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이 줄어들자 이를 고스란히 C사에 떠넘긴 것이다. 팔기는 더 많이 팔았는데 남는 게 없이 팔지는 장사를 하고 만 것이다.

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도 심각하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사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심지어 30%까지 하도급 대금을 후려쳐 비난을 사고 있다.

지식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49.7%가 지난해보다 경영이 나아진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들은 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

림돌로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상의 문제를 꼽고 있다.

인력 빼기기도 심각하다. LED 연구인력이나 모바일 개발자가 주 타깃이다.

스마트폰 산업을 구성하는 핵심 모바일플랫폼(OS)·애플리케이션·콘텐츠 핵심 인력들이 대거 삼성전자로 이동하면서 국내 모바일 개발인력의 풀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 초에는 중견 LED업체의 핵심 연구인력을 대기업이 대거 빼가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법정다툼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경제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네트워크를 약화시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들었다. 부품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면서 브레이크 불량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대규모 리콜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공생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납품단가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명사십리 피서 인파

피서가 절정을 이룬 1일 오후 안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형형색색의 파라솔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7만여명의 인파로 붐볐다. /안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예산편성 때 시민 토론 부친다

### 광주시 ‘참여 조례’ 시의회 상정키로

광주시가 시정에 시민참여를 공식 화하고 시장이 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광주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시민참여예산제와 공청회·설명회 개최 최후, 시민의견 조사, 위원회 결과가 공개 등이 포함돼 시민들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1일 “시민참여 조례안에 대해 15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광주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광주시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실시했던 공청회와 설명회를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공청회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포함된 주민 1000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되 각 자치구별로 100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설명회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에 포함된 주민 300명 이상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시책 추진과정 등의 공개로 시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보류된 바 있으며, 현재 대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민참여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 여자축구 3위 해냈다 ▶ 관련기사 18면

## 사상최대 실적 기아차 ‘타임오프 갈등’ 암초 두달새 2만8천대 생산차질

타임오프제(근로시간제한도) 적용을 둘러싼 노사 대립으로 기아자동차 노조가 특근과 잔업을 중단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생산 차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판매 100만대, 매출 10조6286억원, 영업이익 7335억원, 당기순이익 9563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기아차 르네상스’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1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6월과 7월 8차례의 주말 특근을 거부해 2만여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주·야 2시간 하루 4시간씩 잔업마저 거부해 당초 계획에서 8000여대를 생산하지 못했다. 이처럼 특근과 잔업 거부로 K5·K7·스포티지R 등 2만8000여대가 생산되지 못하면서 출고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신차 K5에 대한 출고 대기기간은 45일 가량이다.

광주공장에서만 생산 차질이 1만 2800여대에 달하고 있다. 특근·잔업이 중단되면서 출고 대기 물량도 늘고 있다. 현재 광주공장의 대기 물량(백오더)만 스포티지R 3만4000대, 쏘울 2만2000여대에 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자울형 사립고 지정  
신분제 폐지됩니다  
보통고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통고등학교  
문의: 062-940-5800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판타지아 지상전  
▼스키아본 기문 ‘라피엘로’(왼쪽) ‘레오나르도’  
양증맞은 거북이의 나들이  
이탈리아 유리 공방 스킴(Schiavon) 가문의 작가들이 양증맞은 바다 거북이를 빚은 작품들. ‘라피엘로’는 앞에서 깨어난 거북이가 바닷물을 찾아나선 모습을 형상화했고, ‘레오나르도’는 암거북이의 아름다운 색상을 담았다. 거북이의 등은 다양한 유리로 색을 냈고, 얼굴과 다리는 투명한 크리스탈로 마감했다. 뜨거운 유리가 식기 전에 조각칼로 작품 표면을 긁어 거북이 다리의 주름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한편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은 오는 22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本 社 人 事  
▲劉任鉉 광고마케팅  
영업국장 <8월2일자>  
학교실림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타르를 세양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대학치과 수완점 개원  
8월 1일  
찾아오시는 길  
수완점 062) 961-0002